

## 노인시설주거의 커뮤니티 구성에 대한 요구 Needs for the Community in the Elderly Institution

양세화\*  
Yang, Se-hwa

박희진\*\*  
Pak, Hee-Jin

오찬옥\*\*\*  
Oh, Chan-ohk

###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eeds for the community in the elderly institution and the related factors. The raw data, collected in 2000, from the Study for the Silver Industry in Ulsan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sample consisted of 292 elderly aged 65 and over living in Ulsan, and the purpose was accomplished using frequencies, percentages, and chi-squared test with cross-tabulation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elderly tends to have negative responses to the discriminations by health conditions and sharing the public spaces with neighbors. However it was more likely that the elderly wants to have separate public spaces and facilities by gender. They prefer private residential units rather than public spaces for the meals, baths, and receptions. It was also found that gender, with or without spouse, education level, and economic condition of the elderly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needs for the community in the elderly housing.

Keywords : Elderly institution, Community needs

### I. 서 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다. 그 일환인 노인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도 새로운 양상을 띄고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노인시설주거와 함께 'aging in place', 즉 노인들로 하여금 이제까지 살아온 친숙한 지역이나 주택에서 그대로 살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 우리 나라에서는 과거 노인의 가족부양을 기본 취지로 하던 삼세대 동거주거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서는 노인시설주거 또는 노인생활지원주거 등과 같은 여러 유형의 유료 노인시설로 변화해 가고 있다.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노년에 대한 노인 스스로의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독립된 생활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화됨은 물론 자녀 세대의 부모 부양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있어 이러한 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시설주거에서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특성을 함께 고려한 지원적인(supportive) 주거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단위주거 계획은 물론 커뮤니티에 대한 구성도 함께 배려되어야 한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커뮤니티(communitiy)란 사회조직체로서의 공간적·지리적 단위를 가리키며 아울러 이러한 단위에 모여 사는 인간집단의 소속감이나 연대감,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칭한다(조성기, 1990; 김영변 외, 1994).

이러한 커뮤니티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환경적 관점이란 그 어떤 인간집단이 정주하는 단위공간에 관심을 두고 물리적 환경의 조성에 접근하는 것으로(강혜경, 2002), 본 연구에서는 노인시설주거라는 지리적 영역에서 공동의 유대를 통한 소속감이나 애착심 등의 사회적 관계 모색에 필요한 커뮤니티의 구성방안을 부분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커뮤니티의 구성은 노인시설주거 계획에 있어 특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 노인이 되면 체력이 저하되

\*정회원, 울산대 주거환경학전공, 교수  
\*\*정회원, 울산대 주거환경학전공, 부교수  
\*\*\*정회원, 인제대, 디자인학부, 부교수

고 외로움이나 고독감, 심할 경우 우울증 같은 심리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사를 지원해주는 공동시설의 확보나 시설에 함께 거주하는 노인들 간의 자연스러운 접촉, 또는 지역주민들과의 연계 기회 등이 커뮤니티를 통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다면 시설주거에서의 생활에 활력을 주는 바람직한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시설주거의 커뮤니티 구성에 대한 노인들의 직접적인 요구를 조사하고 이러한 요구가 노인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노인주거를 다룬 많은 선행연구들은 자료수집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예비노인인 중년층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또는 관련 문헌이나 사례조사 등을 기초로 노인주거의 계획방향이나 지침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요구를 직접 조사·분석한 것이므로 보다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노인시설주거의 커뮤니티 구성

앞에서 살펴본 커뮤니티의 개념을 토대로 노인시설주거의 커뮤니티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사회적 요소와 물리적 환경요소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사회적 요소는 공동체 의식이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주 노인의 성별이나 연령 등에 따른 거주자 구성과 지역주민과의 연계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물리적 환경요소는 거주 노인 간의 사회적 접촉에 영향을 주는 시설주거에서의 공동공간(식당, 접대실, 목욕탕 등)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 1. 사회적 요소

이인수(1997)는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사회적 접촉을 증대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연령분리식 입주자 관리를 제시하였다. 즉 연령 차이가 5세를 넘지 않는 동일한 연령집단의 노인들을 각 층에 함께 살도록 조정함으로써 비교적 유사한 건강상태와 취미, 심리상태를 가진 노인들끼리 운동이나 외출, 사교를 도모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시설주거에서의 거주자 구성방식을 다룬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의 혼합구성에 대해 선호하였으며, 젊은 층일수

록 이러한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혼합방식에서는 동일 건물 내에서의 혼합보다는 같은 단지 안의 다른 건물에서의 혼합을 선호하고 있었다(토지개발공사, 1994; 박근형과 양우현, 1996). 한편 노후 주거환경에 대한 중년층의 요구를 조사한 전명숙(1994)의 연구에서는 노인들만의 단지 구성을 요구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으로 나타났다. 단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노후의 주거단지가 노인만으로 구성되기를 더욱 선호하였다.

지역주민과의 교류나 그들과 시설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김혜정(2000)은 노인시설 내 공동공간을 외부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시설 내의 공동공간을 인근에 거주하는 다른 노인들이나 또는 다른 연령층과 함께 사용할 경우 공간의 활성화는 물론 거주 노인의 사회성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인시설은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노인들만의 주거시설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도시에 위치한 시설이라면 인근의 지역사회 시설을 공유함으로써 입주 노인과 지역주민 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또 시골에 위치한 리조트형 시설일 경우에는 소외된 시골 노인들에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설 거주 노인들과의 사회적 접촉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한상목, 1995).

### 2. 물리적 환경 요소

노인시설주거 내의 공동공간은 사교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어 노인들에게 여가활동과 사회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김혜정, 2000). 또한 노인시설주거는 거주자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공동공간의 구성과 배치는 입주를 결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자 기준이 되며 이로 인해 다른 유형의 공동주거에 비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50%로 큰 편이다(한상목, 1995).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인시설 중 유료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모든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에는 공동식당과 공동목욕탕을 설치해야 하

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이종협과 강건희, 2000). 실제로도 우리나라의 노인시설은 모두 공동식당과 공동 목욕탕을 제공하고 있다(한희경과 오덕성, 1999). 또한 대한주택공사(1996)의 조사에서도 노인시설주거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부대시설은 공동목욕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목욕을 하는 것은 강한 '끼리의식'에 의한 것으로 목욕을 통해 같이 늙어감을 느끼고 동년배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노인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공동 행위의 하나이다. 또 입욕은 위생적인 기능 외에도 휴식과 치유의 목적도 있어 노인들에게는 건강 효과도 크다(김혜정, 2000).

한편 박경란 외(1995)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근린생활시설의 이용정도를 조사하였는데 목욕시설, 상가시설 및 의료시설을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여자노인들은 목욕시설, 의료와 오락·집회 서비스를 포함한 제반 서비스에 대해 요구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동공간 중에서 식당은 노인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또 자주 이용되는 장소이다. 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행위, 생일 및 크리스마스 파티, 각종 집회 및 대규모 행사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사회적인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장소이다(이광우, 1999). 또한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행위는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일상 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영지(1997)의 실버타운 시설환경에 대한 선호도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식생활 문제를 해결해주는 공동식당의 운영시설에 대해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건강상태의 변화로 인해 개인적인 식생활 해결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노인들의 사회적 접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물리적 방법의 하나로 이인수(1997)는 복도는 개방형으로 하고 출입구는 마주보게, 그리고 라운지는 건물의 중심에 배치하는 공간구성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노인시설의 곳곳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소파나 의자 등이 갖추어져 있거나 또는 라운지가 있어 노인 거주자들끼리는 물론 가족이나 친지 등이 방문했을 때 접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노인시설일 경우 거주노인들은 이 점에 대해 긍정적인 반

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찬옥, 2001).

###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울산지역 노인의 의·식·주생활 실태 조사-노인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의 원자료이다. 측정도구인 설문지는 전은경 외 5인(2000)에 의해 직접 개발된 것으로, 노인들의 의생활 실태와 의복구매 성향, 식습관과 식행동, 건강보조 식품과 선호 음식, 전반적인 주거의 식과 노인시설주거에 대한 선호 특성, 그리고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포괄적인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자료는 울산시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남·녀 성인 463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문화센터, 보건소, 병원, 노인회관 등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이 중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292명의 응답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여의치 않은 경우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면접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생활에 관련된 문항 중 커뮤니티 구성과 직접 관련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표 1 참조><sup>1)</sup> 각 문항은 응답자가 노인임을 감안하여 3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

표 1. 커뮤니티 구성 요소 및 측정 문항

	커뮤니티 구성 요소	측정 문항
사회적 요소	건강상태에 따른 입주 제한	내가 살게 될 시설에는 건강한 노인들만 거주하기를 원한다.
	공동시설의 남녀구분 사용	공동시설은 남녀가 같이 사용하는 것보다 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지역주민과의 시설 공유	모든 시설(슈퍼마켓, 운동시설, 여가시설, 병원 등을 포함하는 공동공간 및 시설)을 지역주민들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물리적 환경 요소	공동 식당	식사는 방에서 직접 해 먹는 것보다 공동 식당에서 다른 거주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공동 목욕탕	개별 목욕탕보다 공동 목욕탕이 더 좋다.
	공동 접대공간	친지가 방문할 경우 방에서 보다 공동의 접대공간에서 하기를 원한다.

1) 응답에 앞서 “시설주거의 거주하신다면”이라는 전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항과 의견일치 정도가 큰 것으로 해석하였다. 설명변수로 쓰인 노인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배우자와의 동거상태, 교육정도, 한달 용돈, 건강상태를 사용하였다<표 2 참조>. 자료는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와 교차분석으로 분석하였다.

#### IV. 분석결과 및 논의

##### 1.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사항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표 2>와 같다. 조사대상 노인의 72.9%가 여자였고 60대 후반 노인이 40.1%, 75세 이상 노인이 30.1%였다. 배우자와의 동거상태를 보면 배우자가 생존하여 현재 함

표 2.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적 특성 n = 292<sup>1)</sup>

일반적 특성		빈도 (%)
성 별	남자	79 (27.1)
	여자	213 (72.9)
연 령	65-69세	117 (40.1)
	70-74세	87 (29.8)
	75세 이상	88 (30.1)
배우자와의 동거상태	비동거	174 (60.0)
	동거	116 (40.0)
교육정도	무학	101 (34.6)
	초등학교	121 (41.4)
	중학교 이상	70 (24.0)
한달 용돈	10만원 미만	126 (43.4)
	10-20만원 미만	101 (34.8)
	20만원 이상	63 (21.8)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다.	104 (35.7)
	건강하다.	187 (64.3)

1) 무응답 제외로 변인별 사례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께 살고 있는(동거) 비율이 40%, 사별이나 이혼, 별거 등으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비동거) 비율이 60%로 비동거의 비율이 높았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41.4%로 가장 많았고 무학도 34.6%를 차지하였다. 한달 평균 용돈은 10만원 미만이 43.4%로 가장 많았으며, 10-20만원 미만이 34.8%, 20만원 이상이 21.8%를 차지하였다. 건강상태는 양호하다고 한 경우가 64.3%였고 나머지 35.7%는 양호하지 않다고 하였다.

##### 2. 노인시설주거의 커뮤니티 구성에 대한 요구

<표 3>은 노인시설주거의 커뮤니티 구성에 대한 조사대상 노인들의 전반적인 요구 경향을 나타낸다. 노인시설 커뮤니티의 사회적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를 살펴보면, 건강상태에 따라 입주를 제한하지 말 것과 공동시설은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 그리고 지역주민과 시설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희망하지 않거나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경향을 보였다.

건강한 노인만 시설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응답 노인의 46.5%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건강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이 시설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건강상태에 따라 시설 입주를 제한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비율은 24.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되면 건강상태의 변화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

공동시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노인의 43.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34.1%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현재의 노인들이 전통적인 생활방식 즉, 남녀 구분이 심한 환경

표 3. 노인시설의 커뮤니티 구성에 대한 요구

n = 292<sup>1)</sup>

노인시설의 커뮤니티 구성에 대한 요구		f (%)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사회적 요소	건강상태에 따른 입주 제한	69 (24.1)	84 (29.4)	133 (46.5)
	공동시설의 남녀구분 사용	125 (43.6)	64 (22.3)	98 (34.1)
	지역주민과의 시설 공유	82 (28.1)	104 (35.6)	100 (35.0)
물리적 환경요소	공동 식당	84 (29.3)	45 (15.7)	158 (55.0)
	공동 목욕탕	79 (27.7)	71 (24.9)	135 (47.4)
	공동 접대공간	85 (29.6)	65 (22.7)	137 (46.9)

1) 무응답 제외로 변인별 사례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에서 자라왔으므로 이로 인해 공동시설을 남녀가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노인시설 내의 병원이나 여가 및 취미시설, 슈퍼마켓, 스포츠 센터 등의 제반 시설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해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28.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노인시설에 거주함으로써 인해 느낄 수 있는 고립감이나 격리감 등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김혜정(2000)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거주 노인들이 느끼는 고립감이나 격리감보다는 영역성의 침범이나 개인생활 침해 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선시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노인시설 커뮤니티의 물리적 환경요소인 식당과 목욕탕, 그리고 접대공간을 노인시설 내에 공동공간으로 두는 것에 대하여 조사대상 노인의 거의 절반 정도가 필요없다고 하였으며, 필요하다고 한 비율은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선행연구(김은주, 1991; 임철우·윤종숙, 1993; 허병이, 1997)는 물론 본 연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시설의 단위주거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 박희진 외 2인(2003)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노인들은 시설주거라 하더라도 일반 주거와 마찬가지로 침실, 화장실, 부엌, 거실이 단위주거에 모두 갖추어지기를 바라는 경향이 컸다. 아울러 실제 노인시설에서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서비스에 대한 조사(전은경 외 5인, 2000)에서도 식사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식사나 목욕, 접대 등을 위한 공간을 공동공간에 두고 이를 시설 거주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시사해 준다. 따라서 노인시설을 계획할 때 노인들이 가능한 한 개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이라는 특수 상황 즉, 건강상태의 급변으로 스스로 식생활을 해결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될 경우와 사회적 고립을 막고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제공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시설계획시 공동식당을 두고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3. 노인시설의 커뮤니티 구성에 대한 요구와 노인 특성간의 관계

노인시설의 커뮤니티 구성에 대한 요구가 노인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통한  $\chi^2$  검증을 하였다. 커뮤니티 구성에 대한 요구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 요소인 건강상태에 따른 입주 제한, 공동시설의 남녀구분 사용, 지역주민과의 시설 공유에 대한 요구와 물리적 환경요소인 공동 식당, 공동 목욕탕, 공동 접대공간에 대한 요구의 6개 요소이며, 노인의 제반 특성은 성별, 연령, 배우자와의 동거상태, 교육정도, 한달 용돈, 건강상태이다. 분석 결과 6개 커뮤니티 구성 요소 중 거주자의 공동 목욕탕에 대한 요구는 노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머지 5개 요소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경우만 표에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 1) 거주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입주 제한 요구

노인시설 거주자의 건강상태별 구성에 대한 요구와 노인 특성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유의적인 차이는 노인의 성별과 한달 용돈과의 관계에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자 노인은 노인 시설에의 입주를 건강상태에 따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일수록, 그리고 용돈이 많은 노인일수록 노인시설에의 입주를 건강상태에 따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자노인은 노인시설 입주를 건강상태에 따라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는 비율이 52.9%로 전체 경향인 47.1%보다 높은 반면, 남자노인은 32.9%가 제한하기를 원해 제한을 회망하는 전체 비율 24.1%보다 높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자노인에 비해 여자노인이 자기 스스로 시설 입주를 결정하는 경향이 높고, 또 스스로 입주를 결정하였을 경우 훨씬 적응력이 높아지므로(차용은과 서병숙, 1996) 여자노인이 다른 거주자의 조건에 대해 덜 민감할 수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노인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한달 용돈의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용돈 수준에 상관없이 건강상태에 따라 입주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한달에 10만원 미만의 용

표 4. 거주자의 건강상태별 구성에 대한 요구와 노인특성 교차분석

n = 292<sup>1)</sup>

변수	구분	거주자의 건강상태별 구성				χ <sup>2</sup>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f (%)	f (%)	f (%)	f (%)	
성별	여자	44 (20.9)	55 (26.2)	111 (52.9)	210 (100.0)	12.880**
	남자	25 (32.9)	29 (38.2)	22 (28.9)	76 (100.0)	
	계	69 (24.1)	84 (29.4)	133 (46.5)	286 (100.0)	
한달용돈	10만원 미만	44 (35.8)	25 (20.3)	54 (43.9)	123 (100.0)	19.121***
	10-20만원 미만	13 (13.1)	35 (35.4)	51 (51.5)	99 (100.0)	
	20만원 이상	12 (19.4)	23 (37.1)	27 (43.5)	62 (100.0)	
	계	69 (24.3)	82 (29.2)	132 (46.5)	284 (100.0)	

\*\*p<.01 \*\*\*p<.001

1) 무응답 제외로 변인별 사례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돈을 쓰는 노인의 경우는 35.8%가 건강상태에 따른 입주 제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용돈수준 집단과 비교했을 때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또한 10-20만원 미만의 용돈을 쓰는 노인들은 건강상태에 따라 입주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다른 집단보다 부정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1.5%). 이는 경제력이 있을수록 삶에 대한 여유와 함께 건강하지 못한 노인도 수용하고 포용하려는 성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2) 공동시설의 남녀구분 사용에 대한 요구

공동시설의 남녀구분 사용에 대한 요구는 노인의 성별과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표 5 참조>. 전반적으로 여자노인이나 건강한 노인이 시설주거 내 공동시설을 남녀 구분 없이 함께 사용하려는 성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구체적인 차이를 보면, 공동시설의 남

녀구분 사용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남녀 모두 찬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찬성하는 남자노인의 비율이 50.6%로 과반수가 넘었으며 반대하는 경우에는 여성노인(39.0%)이 남자노인(20.8%)보다 많이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인 경향에 비해 높은 수치로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 사회의 남자노인들이 이제껏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자와 함께 공동시설을 사용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여자에 비해 남자들이 사회성이 다소 약한 성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건강한 노인의 45.1%는 공동시설을 남녀가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며 이는 전체 비율보다 10% 이상 높은 것이다. 이는 건강한 노인의 경우 건강하지 못한 노인보다 이성에 대한 관심을

표 5. 공동시설의 남녀구분 사용에 대한 요구와 노인특성 교차분석

n = 292<sup>1)</sup>

변수	구분	공동시설의 남녀구분 사용				χ <sup>2</sup>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f (%)	f (%)	f (%)	f (%)	
성별	여자	86(41.0)	42(20.0)	82(39.0)	210(100.0)	8.579*
	남자	39(50.6)	22(28.6)	16(20.8)	77(100.0)	
	계	125(43.6)	64(22.3)	98(34.1)	287(100.0)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다	84(45.7)	48(26.0)	52(28.3)	184(100.0)	9.228*
	건강하다	40(39.2)	16(15.7)	46(45.1)	102(100.0)	
	계	124(43.3)	64(22.4)	98(34.3)	286(100.0)	

\*p<.05

1) 무응답 제외로 변인별 사례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표현하려는 경향이 더 클 것이고 이로 인해 이성과의 교류에 더욱 적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3) 지역주민과의 시설 공유에 대한 요구

<표 6>은 지역주민과의 시설 공유에 대한 요구와 노인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로 배우자와의 동거상태, 교육정도, 한달 용돈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경향은 현재 혼자 사는 노인일수록, 학력이 낮은 노인일수록, 경제력이 낮은 노인일수록 노인시설 내의 시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용하기를 희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은 지역주민과 시설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44.6%로 가장 많은 반면, 혼자 사는 노인은 공유를 희망하는 비율이 33.7%로 전체 비율인 28.5%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혼자 사는 노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기회가 적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바램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시설공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노인은 전체 분포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무학의 노인은 전체 분포인 28.8%보다 10%정도 많은 39.0%가 지역주민과 시설을 공유하기를 원하였으며,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은 지역주민과 시설공유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49.3%

로 전체분포인 35.1%보다 훨씬 많았다.

한달 용돈에 따른 차이를 보면, 10만원 미만의 용돈을 쓰는 노인의 경우 시설 공유를 희망하는 비율이 36.3%로 전체 분포보다 높았고, 10-20만원 미만의 용돈을 쓰는 노인은 지역주민과 시설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44.9%로 전체 분포인 34.5%에 비해 높았다. 이는 학력이 낮고 경제력이 낮은 노인일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생각할 수도 있다.

4) 공동 식당에 대한 요구

<표 7>에 의하면 노인시설 내 공동 식당에 대한 요구는 노인의 성별, 배우자와의 동거상태, 교육정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이 이혼이나 사별, 별거로 인해 혼자 사는 노인보다, 그리고 중학교 이상의 높은 학력을 가진 노인일수록 공동 식당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노인의 경우 전체 분포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면서 공동식당을 희망한 경우가 전체 분포보다 약간 적은 26.2%에 그친 반면, 남자의 경우는 37.7%가 희망하여 전체보다 약 8%가량 많았다. 공동식당에 대한 요구가 여자노인에 비해 남자노인에게 더욱 많은 이유의 하나는 사회생활의 축소로 인해 줄어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기회를 식사 시간을 통해 만

표 6. 지역주민과의 시설 공유에 대한 요구와 노인특성 교차분석

n = 292<sup>1)</sup>

변수	구분	지역주민과의 시설 공유				χ <sup>2</sup>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f (%)	f (%)	f (%)	f (%)	
배우자 동거상태	비동거	58(33.7)	64(37.2)	50(29.1)	172(100.0)	8.913*
	동거	23(20.5)	39(34.8)	50(44.7)	112(100.0)	
	계	81(28.5)	103(36.3)	100(35.2)	284(100.0)	
교육정도	무학	39(39.0)	38(38.0)	23(23.0)	100(100.0)	14.864**
	초등학교	30(25.4)	44(37.3)	44(37.3)	118(100.0)	
	중학교 이상	13(19.4)	21(31.3)	33(49.3)	67(100.0)	
	계	82(28.8)	103(36.1)	100(35.1)	285(100.0)	
한달용돈	10만원 미만	45(36.3)	49(39.5)	30(24.2)	124(100.0)	13.045*
	10-20만원 미만	24(24.5)	30(30.6)	49(44.9)	98(100.0)	
	20만원 이상	13(21.0)	25(40.3)	24(38.7)	62(100.0)	
	계	82(28.9)	104(36.6)	98(34.5)	284(100.0)	

\*p<.05 \*\*p<.01

1) 무응답 제외로 변인별 사례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회하고자 하는 바램에서라고 볼 수 있다.

배우자와의 동거상태에 따라서 살펴보면,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공동 식당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61%로 전체 분포(54.7%)보다 많은 반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은 공동 식당이 필요하다고 한 비율이 34.5%로 전체 분포에 비해 약간 많았다.

학력이 무학인 노인의 58.0%, 초등학교를 졸업한 노인의 61%는 공동식당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분포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은 공동식당을 요구한 비율이 36.8%로 전체 분포인 29.4%보다 높았다. 이는 학력이 높은 노인일수록 시간자원의 분배 및 활용을 생각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력이 높은 노인일수록 공동식당에서 식사를 하므로써 식사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이 시간을 여가나 취미활동, 사교 등에 할

애하려는 생각을 더욱 많이 가지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공동 접대공간에 대한 요구

시설 내에 공동 접대공간을 두는데 대한 요구는 노인의 성별에 의해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8>.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47.7%로 시설 내에 공동 접대공간을 두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구체적인 차이에서는 남자 노인의 32.2%가 공동접대공간에 대해 그저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 전체 응답 22.6%에 비해 10%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여자노인(32.4%)이 남자노인(22.1%)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요구가 더 큰데(Veitch & Arkelin, 1995), 이를 감안한다면 아마 여자노인이 남자노인

표 7. 공동 식당에 대한 요구와 노인특성 교차분석

n = 292<sup>1)</sup>

변수	구분	공동 식당				$\chi^2$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f (%)	f (%)	f (%)	f (%)	
성별	여자	55(26.2)	30(14.3)	125(59.5)	210(100.0)	6.346*
	남자	29(37.6)	15(19.5)	33(42.9)	77(100.0)	
	계	84(29.3)	45(15.7)	158(55.0)	287(100.0)	
배우자 동거상태	비동거	45(26.2)	22(12.8)	105(61.0)	172(100.0)	7.239*
	동거	39(34.5)	23(20.4)	51(45.1)	113(100.0)	
	계	84(29.5)	45(15.8)	156(54.7)	285(100.0)	
교육정도	무학	30(30.0)	12(12.0)	58(58.0)	100(100.0)	9.686*
	초등학교	29(24.6)	17(14.4)	72(61.0)	118(100.0)	
	중학교 이상	25(36.8)	16(23.5)	27(39.7)	68(100.0)	
	계	84(29.4)	45(15.7)	157(54.9)	286(100.0)	

\*p<.05

1) 무응답 제외로 변인별 사례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표 8. 공동 접대공간에 대한 요구와 노인특성 교차분석

n = 292<sup>1)</sup>

변수	구분	공동 접대공간				$\chi^2$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f (%)	f (%)	f (%)	f (%)	
성별	여자	68(32.4)	40(19.0)	102(48.6)	210(100.0)	6.614*
	남자	17(22.1)	25(32.5)	35(45.4)	77(100.0)	
	계	85(29.6)	65(22.7)	137(47.7)	287(100.0)	

\*p<.05

1) 무응답 제외로 변인별 사례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보다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서 자신의 거주 공간 보다는 공동의 접대공간에서 손님을 맞으려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시설주거의 커뮤니티 구성에 대한 노인들의 요구를 사회적 요소와 물리적 환경요소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이러한 요구가 노인의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시설 커뮤니티의 사회적 요소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노인들은 건강상태에 따라 입주를 제한하지 말 것과 공동시설은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시설주거 내의 제반 편의시설이나 공간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시설주거의 계획 시에는 건강한 노인은 물론 그렇지 않은 노인까지 함께 배려하여 건강상태에 상관없이 일상생활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시설을 계획할 때는 남성 전용 시설과 여성전용 시설, 또는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실을 고루 제공함으로써 노인으로 하여금 선택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주민과의 시설 공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었지만 일부 시설만이라도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시설 내에 거주하는 노인들끼리만 어울리게 될 경우, 친밀함과 안정감은 유지될 수 있을지 몰라도 새로운 정보나 변화를 갖기가 어렵고 자칫하면 분위기가 침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커뮤니티 구성의 물리적 환경요소 측면에서는 식당, 목욕탕, 접대공간을 공동공간으로 두는 데 대한 요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조사대상 노인의 거의 절반 정도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비록 커뮤니티 구성을 다룬 선행연구의 부재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단위주거에 대한 요구를 다룬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침실, 화장실, 부엌, 거실 등의 모든 공간이 단위주거 내에 갖추어 지기를 원하는 것에 비추어보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식사,

목욕, 친구 접대 등의 행위는 우선적으로 단위주거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공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동목욕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동공간이 노인들의 사회적 교류를 도모할 수 있는 기능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 선행연구들이 입증하였기 때문에 보조시설로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노인시설의 커뮤니티 구성에 대한 요구는 노인의 성별, 배우자 유무, 학력, 경제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를 구성할 때는 예상 거주노인의 이러한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점은 노인의 성별이 미치는 영향이다. 동일한 원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시설의 단위주거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 박희진 외(2003)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성별은 유의적인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변인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단위주거와 달리 사회적 관계 모색이라는 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이에 대한 남녀 노인의 인식 차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추측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노인시설주거의 커뮤니티 구성이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를 기존의 제한된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함으로써 설문 내용 및 문항 수 등이 부족하여 서론에서 제기된 연구목적이 충분히 수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시설에 입주한다면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졌으므로 노인시설을 사용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짐작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어 노인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의식이나 요구에 대해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한 경우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노인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후속연구는 시설주거의 보급 확대라는 시대적 요청을 감안해 볼 때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심층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한다면 노인시설주거 커뮤니티의 사회적 측면과 물리적 환경 측면에 대해 본 연구가 포함시키지 못한 보다 많은 요소들이 면밀히 검토, 추출되어야 하며 아울러 프라이버시나 개인 공간 등의 심리적 측면에 관련된 요소도 함께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병근(1998), 노인시설의 건축적 연구과제. 건축가. 188호. 79-95.
2. 강혜경(2002), 아파트단지의 커뮤니티 디자인을 위한공동 생활공간의 계획방향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김영변 외(1994), 공동체 의식과 시민운동.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4. 김영지(1997), 실버타운의 타운형성에 대한 선호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김혜정(2000), 고령화 사회의 은퇴주거단지 디자인. 서울: 경춘사.
6. 대한주택공사(1996), 노인거주자를 위한 주택형 및 설계지침연구. 주택연구소.
7. 박경란·제미경·오찬옥(1995), 대도시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가족·소비·주거생활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5호 2권, 117-139.
8. 박근형·양우현(1996), 노인을 위한 도시 공동주택의 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1호, 13-21.
9. 박태환(1993), 노년층을 위한 주거연속체와 공동체 형성의 건축기획, 실버산업개발전략.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0. 박희진·양세화·오찬옥(2003), 노인시설의 단위주거에 대한 요구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36호, 44-51.
11. 신경주·황은주(1996),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실태 및 거주자 만족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8호, 83-93.
12. 오찬옥(2001), 반의존 노인을 위한 시설주거의 계획방향. 한국주거학회지, 12권 4호, 73-81.
13. 이광우(1999), 노인을 위한 집단주거시설의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이인수(1997), 노인주거와 실버산업. 춘천: 하우.
15. 이종협·강건희(2000), 유료 양로시설의 공간 및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25호, 162-168.
16. 조성기(1990), 도시주거학. 서울: 동명사.
17. 전명숙(1994),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 노인주거환경.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 전명숙·강순주(1992), 노인주거 계획에 관한 이론적 접근-노인주거유형의 외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권 6호, 15-27.
19. 전은경 외 5인(2000), 울산지역 노인의 의식주생활 실태조사. 노인복지연구, 8호, 121-148.
20. 차용은·서병숙(1996), 유료시설 거주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권 4호, 129-143.
21. 한국토지개발공사(1995), 실버타운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22. 한상목(1995). 한국 유료 노인 복지시설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 한희경·오덕성(1999), 실버타운의 시설계획특성과 사용자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5권 12호, 13-22.
24. Lawton, M. P.(1975), Planning and Management Housing for the Elderly. New York: John Wiley.
25. Vardy, D. P.(1984), Determinants of interest in senior citizens housing among the community resident elderly. The Gerontologist, 24, 4.
26. Veitch, R. & Arkelin, D.(1995), Environmental Psychology. New Jersey: Prentice Hall.